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 T. 714-732-1484 / 발행인: 김홍식 / 편집인: 나삼진

우리는 care하고 하나님은 치료(cure)하신다



이사장 김홍식 장로
(내과 의사, 수필가)

졸업 시즌이라 곳곳에서 축하의 소리들이 들려온다. 아들 제임스가 초대하여 이비인후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는 축하 잔치에 참석하였다. USC 이비인후과의 세분화된 다양한 전문에 놀랐다. 코와 후각, 귀 질환과 청력, 후두와 목소리, 무호흡증, 목의 종양수술과 갑상선 수술, 성형이비인후과, 뇌수술에 관련된 이비인후과, 소아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 영역이 있었다.

올해 그 병원에서는 남, 여 2명씩 이비인후과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쳤는데, 졸업하는 수련의들은 5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웠던 일, 재미있었던 일, 실수했던 일들을 기억해내고 나누며 서로 축하해주었다. 끈끈한 전우애 같은 감정과 어려웠던 과정을 마무리 짓는 기쁨과 성취감으로 들떠 있기도 했지만, 이제는 서로 헤어져 각자의 새로운 인생여정을 떠나는 설렘과 동시에 아쉬움, 막연한 슬픔이 눈물로 살짝 비치기도 했다. 나도 벌써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내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나올 때 만감이 교차되었던 시절이 떠올랐다.

여러 축하 순서가 지나고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은 지난 5년간 매우 강도 높고 좋은 수련을 받았습니다. 교수님들도 여러분의 지식습득 과정과 좋은 태도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가도 여러분들은 잘 배운 의학적 지식과 기술로 좋은 평판을 받을 것이며 많은 환자들을 도와 낫게 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의사인 우리들은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많이 진행된 질환의 환자들을 대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는

없어도 환자를 care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을 끝까지 ‘care’하는 의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care 혹은 돌봄’이라는 평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나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다.

나는 한 환자를 끝까지 care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 죽어가는 환자를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 병원에 모든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도 그럴진대, 더더욱 받쳐주는 시설과 의료진이 없는 아프리카의 선교지에서 환자들을 끝까지 care하는 일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일인가? 의사 일 자체도 힘든데, 좌절감과 무력감을 딛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아픔을 마주치는 일.

그런데, 이런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부부를 얼마 전 GMMA 의료선교대회에서 만났다. 남편 박 선교사님은 내과 의사, 부인 백 선교사님은 소아과 의사이신데 본인들의 재산을 털어 넣어 르완다에서 자선 외래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셨다. 일주일에 3일간은 무료, 2일간은 유료로 하여 재정의 일부를 충당하고 돕는 손길들을 통해 나머지 살림을 꾸려간다는 말씀을 들었다. 모든 것, 심지어 자녀교육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두 분이 겪으시는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오히려, “오직 완전히 치료(cure)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끝까지 care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두 분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쳤다. 선교사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니제르 임마누엘 아카데미를 위한 후원의 밤 성황 지난 6월 30일, 홀러튼장로교회당에서



송솔나무와 CTS Mission Choir의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

아프리카미래재단USA의 첫 후원의 밤이 6월 30일 주일 저녁 시간 홀러튼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후원의 밤은 재단 홍보대사 송솔나무의 연주와 CTS America Mission Choir의 연주가 중심이 되었고, 아프리카미래재단 사역 소개 영상 및 한국대표단과 USA 이사들의 인사도 있었다.

후원의 밤은 이날 5시에 김홍식·김정미 이사가 제공한 식사를 마치고, 6시에 연주회가 시작되었다. 김홍식 이사장의 환영인사와 기도로 시작된 후원의 밤 행사는 송솔나무가 벨라 판타지아 등 자신이 작곡한 여러 곡을 연주하면서 곡에 얹힌 이야기와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을 곁들여 풍성한 연주회를 이끌었다. CTS America Mission Choir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등 세 곡을 한 후 '은혜'와 '행복'을 송솔나무와 협연하였다.

AFF USA에서는 후원의 밤을 앞두고 6월 19일 GBC 복음방송 '행복한 동행'에 출연하여 후원의 밤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날 방송은 한정훈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 이사 석소정 퍼스트프라이오리티호스피스 대표, CTS Mission Choir 김명옥 지휘자가 참여하여 후원의 밤 프로그램은 물론 니제르 정혜림 선교사의 그레이스 아카데미를 소개하였다.

이날 후원의 밤에서는 한국 AFF 홍순철 대표와 한국방문단의 인사가 있었고, 사역 소개와 니제르 영상이 상영되었다. 정혜림 선교사는 니제르의 수도 니아메이에서 그레이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던 중 남자 고등학교가 필요성을 절감해 오는 9월에 임마누엘 아카데미를 개교 하는데,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후원의 밤에 드려진 헌금은 니제르 임마누엘 아카데미 개교를 위해 경비를 제외하고 13,862달러를 바로 송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정 선교사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주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시길 기도합니다. AFF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 감사 인사를 보내왔다. 정 선교사는 이와 함께 임마누엘 아카데미의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소식과 최근 실시되었던 상급학교 입학자격시험에 해당되는 검정고시 결과를 알려왔는데, 그레이스 아카데미는 100% 합격을 하였다는 것이다. 검정고시 합격률은 매우 낮은 편인데, 그레이스 아카데미가 속한 니아메이 수도권의 합격률은 21.8%가 합격하였고, 지방들은 더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고시는 상급학교 입학 자격을 얻는 시험으로 학교의 교육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측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니제르는 프랑스 교육제도의 영향을 받아 이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니제르 임마누엘 아카데미 건축 현장

아프리카미래재단 USA가 지난 6월 30일 후원의 밤에서 헌금한 니제르 임마누엘 아카데미 건축이 사진과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 선교사는 이와 함께 9월 개교에 맞추어 건축되고 있는 현장 사진과 소식을 전해 왔다. 임마누엘 아카데미는 9월 개학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1층 건물로 건축된다. 2층 건물은 모금이 이루어지는 대로 추가로 할 계획이다. 보건실습학교는 10월에 개교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간다 선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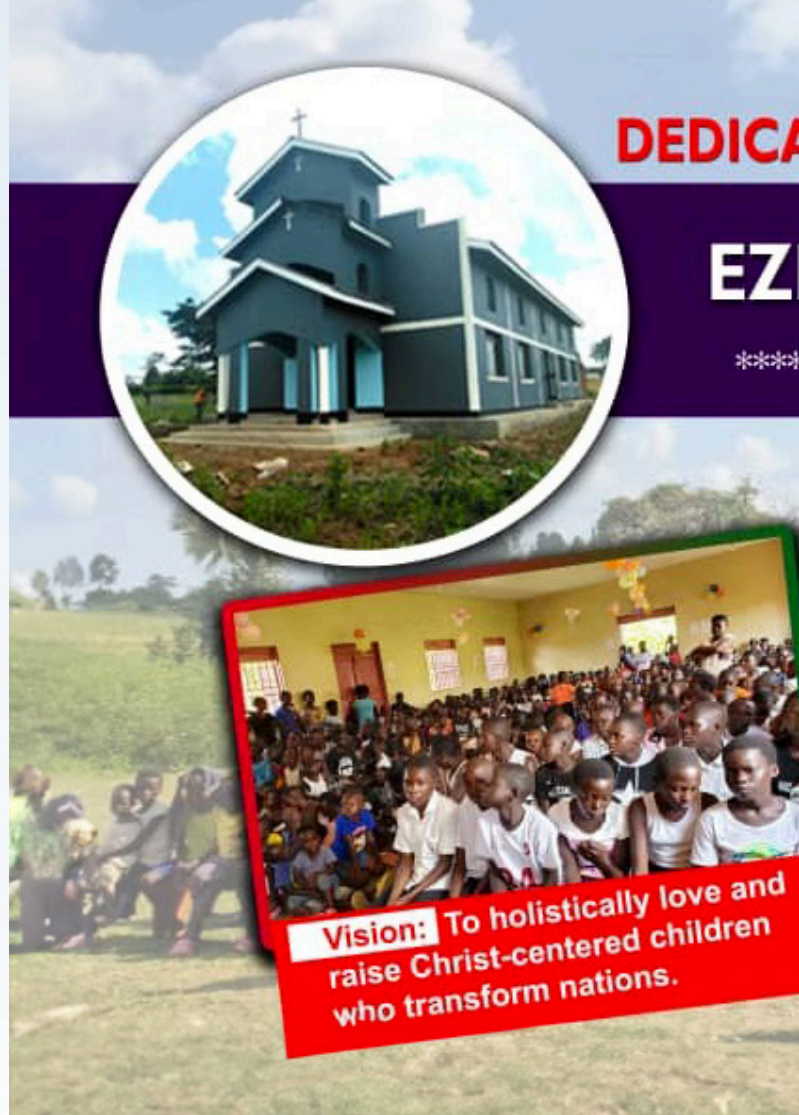
김세현 • 노미정 선교사

What a miracle! 기적이네요



1. 제1어린이교회인 은혜어린이교회(건축 지원 부산 한울교회, 담임: 제인출 목사님)를 시작한 지도 십년이다 되어가네요. 곁어오는 학생들을 조사해보니 너무 멀리서 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리라선교센터에서 약 3~4km 떨어져 있는 에스라성경신학교의 한 교실을 빌려 제2어린이 교회인 에스라 어린이교회를 개척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4년 전 일입니다. 신기하게도 이곳에 주께서 더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셨네요. 교실 안에는 어린이 뿐 아니라 심지어 부모님들도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순간 이게 어린이교회인가? 어른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2. 점점 부흥하는 에스라 어린이교회의 공간을 보니 참으로 좁아서 교사들과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네요. 그것도 한사람이 아닌 여러 곳에서부터. 건축 헌신하신 분은 은혜와 진리교회 최병순 집사님..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면서 일어나자마자 찬양하기를 즐기시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의 열매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또다른 한분은 Sunny Cho 집사님! 미국 오렌지카운티의 감사한인교회 출석



DEDICA

EZ

Vision: To holistically love and raise Christ-centered children who transform nations.

하시고 이미 아프리카 사랑으로 우물 헌금도 지원해 주신 분 이신데 이번에 한번 더 사랑을 쏟아내었습니다. 또 한 곳은 부산 문현제일교회(담임:김재은 목사님)에서 에스라 신학교에 발전을 위한 선교비가 이미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에스라 어린이교회는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중의 기적이죠!

3. 한주 내내 교사들은 기도와 새 예배당 꾸밈으로 분주했습니다. 풍선을 달고 리본을 준비하고 물걸레로 쓸고 닦고... 그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비디오에 찍힌 줄 압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 10시에 헌당식은 시작했습니다. 감사 찬양은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없습니다. 박수를 치고 점프도 하고 드럼도 치고 키보드로도 연주하며.. 온갖 방식으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4. 김 선교사는 설교 시간에 기도의 사람이 되라, 성경의 전문가가 되자, 복음전도자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린이들은 각 반별로 찬양도 준비하고 드라마는 물론 성경암송까지도 발표했어요. 그 중에서 백미는 간증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처음에는 친구따라

ATION CEREMONY OF

RA BIBLE CLUB - CHILDREN CHURCH Y

***** SCRIPTURE ONLY SCRIPTURE MINISTRIES *****



Mission: Shaping the lives of children through God's word.

Core Values: Love, Integrity, Collaboration and Stewardship.

Date: 25th/05/2024

비스킷 받아 먹으려고 왔는데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비스킷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도움이심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변했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이 한 가지 고백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이 웃으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 더욱 더 감사가 넘칩니다. 또 한 학생은 자기는 정말 가지고 싶은 성경이었는데 가난하여 살수 없었는데 어린이교회 와서 성경을 받고 이제는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간단한 간증도 하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교회이구나.. 이런 생각에 너무 기뻐합니다.

5. 참 재미있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을 건축한 기술자 10명이 다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여기뿐 아니라 내 개인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벽돌 쌓은 일꾼들이 엔지니어와 함께 춤추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가? 아멘, 아멘!

6. 찬양을 마치고 김 선교사에게 준비한 선물도 있다고 하며 땅콩농사 지은 것 반 가마와 어린양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이런 큰 사랑이! 모든 교사들도 주님을 높입니다. 아울러 김 선교사 부부가 강권하라고, 오래 살라고, 그래서 더 주께서 많이 사용토록 장수하라고 찬양합니다. 크게 웃어 봅니다.

7. 성경 헌금 해 주신 분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준비한 성경을 나누어 줄 때는 큰 박수가 터지고, 사회자는 성경 받는 자들에게 성경 헌금한 분을 기억하고 꼭 기도하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8. 하나님께서 알맞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준비한 음식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오병이어처럼! 아멘, 아멘.

9. 건축 후 비품들이 필요했는데 준비한 후원교회와 개인을 통해 의자, 스피커, 칠판, 벤치, 강대상 등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음도 주의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글로 다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기도 후원자들을 위해 간략하게 오늘 분위기를 나누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4. 5. 25)



DR 콩고
최관신 선교사



1. 콩고민주공화국 남부키부주 부냐키리 지역에
BYH(Bunyakiri Yesu Hospital) 운영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누가 5:31)”

인구 340,000명의 부냐키리 지역에는 국립병원 1개와 지역의 일부에 4-5개의 지역 보건소가 있다. 그러나 부냐키리 지역은 전문 의료진과 의약품의 공급 부족으로, 이제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환자들은 중병에 걸려도 평생 동안 의사와 간호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부족한 의료시설과 전문 의료진의 보급을 위하여 2023년 1월 9일에 BMCC(Bunyakiri Mubuya Christian College, 부냐키리 복음기독교대학)를 개설하고 먼저 간호학과와 조산학과를 시작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미래재단 아틀란타지부의 지원으로 부냐키리 예수병원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부냐키리 예수병원(BYH) 운영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의료 관련 대학을 운영하려면 부속병원을 건축 운영해야 대학 허가가 나온다. 70%가 넘는 유아사망률을 감소

시키고자 시작한 BMCC의 설립 목적에 맞추어 BYH는 조산 병원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병원 개업은 2023년 9월 16일 부냐키리 예수병원(Bunyakiri Centre Medical Yesu Hospital, BYH) 건축 완공하여 2023년 11월 24일 콩고정부의 병원 개설 승인을 받고, 일반환자 및 출산환자 대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현재 직원 현황은 의사 2명, 간호사 8명,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건물을 건축하여 입원실(36베드) 건축을 완료하였고, 게스트 하우스(16실) 건축 중인데, 7월 중순 경에 완공할 예정이다.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158명의 신생아(여아 90명, 남아: 67명, 혼성 1명)를 출산하였다. 병원 재정 운영은 매출 발생: 26,152,000 FC(=\$9,340.00), 현금 수입: 11,659,600 FC (=\$4,164.14), Loan for Poor: 14,492,400 FC(=\$5,175.85) 산후조리원 건축(\$ 20,000)과 운영 필요한데, 장거리 거주 환자들의 출산 대기를 위한 공간 필요하고, 출산 전후의 산모 교육, 출산 후의 산후조리를 위한 음식 제공(3일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단기 의료봉사팀 지원이 필요한데, 장.단기 의료 선교사의 지원으로 진료와 현지 의료진의 교육을 시키고, 정기적으로 BMCC 학생들과 함께 무의촌 마을에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3. BYH 사역을 위한 기도와 지원요청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25:40)”

- 산후조리원 건축(\$20,000):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 건축(목재 \$5,000, 벽돌 \$10,000)하여 피그미 부족의 문명사회의 정착을 지원한다.

- 산후조리원 지원(\$1,000/월): 출산 후의 산모와 영아에게 영양식을

제공한다.

- 보건교육: 일반인 대상의 보건교육, 출산 전.후의 임산부 교육
 - BYH 병원 사역자 지원요청: Centre Medical Bunyakiri Yesu Hospital을 관리 운영할 병원장 및 의료 봉사할 단기 근무자 지원 (간호사, 의사, 병원 행정 등)

- 병원 기초 의료 장비 및 시설, 소모품, 의약품 지원 요청: 인큐베이터, 전기시설, 냉장고, 세탁기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독자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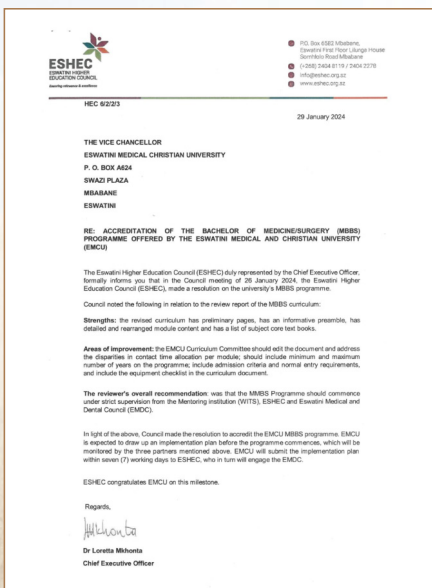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저는 Korean Nurses Association of Atlanta 협회장을 맡고 있는 장마리아입니다. 작년에 Dr. Lee Kyung-ho Office에서 AFF News letter를 접하게 되었고, 저희 협회에서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연말에 Atlanta지부를 통해서 처음으로 \$900 (공고 BMCC nursing school 장학금 명목) donation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최관신 선교사님께서 Atlanta 방문하시고, 보고를 들으면서 현지상황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간호학생 1명의 수업료가 \$300이라 해서 일년에 세 명씩을 생각하고 보냈는데, 선교사님 말씀이 학생 전체가 받는 장학금이다보니 Atlanta지부에서 같이 보내셨다고 하네요. 일단 BMCC로 보내진 것은 알지만, 앞으로도 회원들의 donation을 받으려면 적어도 KNAA가 News letter 기부자 명단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ews letter도 받고 싶고요. 현재 Donation은 들어오는데 확실한 경로를 알아야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가 생긴지 2년 밖에 안 되었지만 각 주 마다, 전 세계에 많이 많은 간호사들이 있어요. 저희가 시작은 미비하나 Africa에 Nurse 한 명 교육을 support해서 병자를 구할 수 있으면 보람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연락 주셔요. 장 마리아 드림. Cell 917-399-4498



아프리카미래재단 창립계기가 되었던 에스와티니 의과대학 인가

2024년 1월 26일 개최된 에스와티니 고등교육 학력인가 기관 (ES HEC) 회의에서, EMCU에서 제공하는 의과대학 학사과정 프로그램 (Medicine / Surgery Programme, MBBS)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에스와티니 정부 대학 인가기관 ESHEC는 프로그램의 강점으로 “제출된 교육과정 관련 문서는 초안과 상세하게 작성된 전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상세한 교재 목록과 함께 세밀하게 준비된 교과목들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공문을 보내었고, 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응답이 있어 의학과 인가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감독기관(WITS), ESHEC 및 에스와티니 의료 및 치과 의학 위원회(EMDC)의 엄격한 감독 하에 개시되어야 함을 통지하면서 축하의 말씀도 덧붙였다. 에스와티니 의과대학 설립은 오래전 아프리카미래재단이 출발한 계기가 된 바 있고, 미국 아프리카미래재단 미국분부는 2022년 에스와티니에서 한국 AFF와 협력하여 의료봉사 사역을 한 바 있다.



AFRICA FUTURE FOUNDATION
17TH

2024 선교대회

• 선교대회 안내
기간: 2024. 8. 29(목) - 9. 1(주일)
장 소: Victoria Falls(Zimbabwe)
대 상: 아프리카 각 국가 65명의 재단 선교사 참여 예정
프로그램: 환영리셉션, 개회예배, 저녁집회, 특강(3회), 폐회예배

AFRICA VISION TRIP

* 선교대회 후 미국 3개 팀의 비전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01 워싱턴 D.C. 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8. 27 ~ 9. 7 지역: 말라위 	<p>02 산호세 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8. 27 ~ 9. 7 지역: 짐바브웨, 잠비아 	<p>03 L.A. 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8. 27 ~ 9. 7 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	---	---

2024 선교대회 개최 미국 3개지역 참가팀, 3개국 비전트립도 가져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한국 AFF와 협력하여 8월 29일부터 선교대회 짐바브웨 빅토리아폴스에서 개최한다.

이 선교대회는 8월 29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 환영 리셉션, 개회예배, 저녁집회, 세차례의 특강, 폐회예배 등으로 진행되고, 초배국립공원과 잠배지강투어 등 선교사들을 위한 위로와 문화행사도 갖는다. 이 선교대회를 위해 열린문장로교회와 AFF 미국본부, 아틀란타지부 등에서 헌금, 참가하는 선교사들의 항공료와 수양회 경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선교대회를 전후하여 미국 AFF에서는 세 개 팀의 비전트립을 갖는다. 미국본부(LA+워싱턴 DC)에서 선교대회 후 말라위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역을 돌아보고, 산호세팀은 짐바브웨와 잠비아의 아프리카미래재단 USA의 중점 선교지를 탐방하며, LA팀은 남아공화국 선교지를 방문한다.

고신대 간호대 동문회, 장학금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동문회는 우리 재단에 아프리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보내오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헌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문회와 개인적인 헌금을 함께 보내왔다.



DR콩고 단기사역자 파송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최근 DR콩고에 두 명의 단기사역자 파송하는 모임과 아프리카에서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미국 연수를 위한 의료보건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재단은 7월 16일 간호사 고우리 씨와 Brian Park 씨를 DR 콩고 부냐끼리 병원 단기사역자를 파송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7월말에 출국 한국을 경유하여 DR 콩고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고우리 씨는 부냐끼리병원에서 보건교육, 간호교육 등을, Brian Park 씨는 영상 교육과 사진 촬영, 영상 제작 등으로 사역 할 예정이다. 이들은 선교지 봉사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석소정 이사가 항공비 등 장학금을 지원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세현 선교사, 에스라성경대학 인가 소식 전하와

우리 재단이 후원하는 우간다 김세현 선교사는 지난 4년 동안 운영해오던 에스라성경신학교(Ezra Bible Institute)의 대학교 인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에스라성경신학교는 그동안 4회 졸업생까지 지난 5월에 배출하는 성장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의 인가 과정을 시작하였다.

에스라성경신학교는 이제 Ezra Bible University 로 개명하여 NGO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한다. 이제 남은 절차는 정부의 교육부같은 최종기관에서 학교 실사와 검사를 통해 시작 단계로 1년간 가인가 상태의 대학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것이 허락된다면 시설을 보충해가면 정식 대학으로 허가를 받게 된다고 한다. 김세현 선교사는 이 대학에서 신학과 및 기독교 교육학, 교사 연장교육, 유아교육학 등 연관성있는 과의 중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아프리카 의료보건 장학금 수여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또 2024년 아프리카 의료보건 인력의 미국 연수 장학생으로 김다운 양을 선정, 7월 26일 모임을 갖고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김다운 양은 방학을 맞아 미국 의료기관 연수를 왔는데, 7월 16일부터 8월 9일까지 이사장 김홍식 내과를 비롯하여 소아과 등에서 실무 연수를 하였다. 김다운 양은 남아공화국 김경환 선교사의 딸로 남아공화국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스텔렌보쉬대학교 의과대학 5학년에 재학중이다.

주목해야 할 새로운 선교지,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



나삼진 목사
(Africa Future Fundation USA 사무총장)

지난해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주)지엔컴리서치에 의뢰하여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를 분석,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개신교인 2천 명과 비개신교인 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 표본오차는 $\pm 2.2\%$ (95% 신뢰구간)이다.

지난 5년 동안 온 세계는 COVID-19 팬데믹으로 7억명이 감염되고 700만명이 사망한 심각한 현상을 보였다. 이 팬데믹은 단순히 그러한 피해만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끌 정도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기간의 한국 개신교인들의 교회생활은 중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한 바는 가나안 성도들,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었다.

한국의 경우 스스로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2012년에 11%에서 최근 29%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교회 비출석 이유로 가장 앞선 것이 예배이기 싫어서 31%, 코로나 때문에 18%, 목회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16% 등의 순이었다. 이 가나안 성도의 43%는 다시 교회에 가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교회 재출석 의향률이 52%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교회 비활동자의 45%는 기회가 된다면 교회 활동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팬데믹 영향으로 교회 출석이 이상적으로 줄었는데, 30%가 온라인상에서 예배, 설교 등 기독교 콘텐츠를 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1%는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성장에 도움을 받는 것이 교회 출석과 예배 참석 및 목회자 설교가 2012년에는 64%, 2017년에는 43%, 2023년에는 28%이고, 이에 비해 인터넷, TV, 라디오, 유튜브 등 미디어의 비율이 19%까지 가파르게 성장해 팬데믹 전후로 미디어가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팬데믹이후 교회 출석이 줄어들었지만, 이후 개인 경건 시간이 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명목적인 신자의 비율이 높기는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그 모습에서 한국교회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 필자는 최근 다시 중남부아프리카선교회가 펴낸 아프리카 연구서 《아프리카를 위로하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주로 남아공화국의 여러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학자형 선교사들이 그들의 학위논문을 정리하거나, 혹은 중남부아프리카선교사대회 때 발표한 글들이 모여진 것이다. 이 책에 포함된 여섯 아티클 가운데 하나인 강병훈 선교사의 “남부 아프리카 선교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전략적 제안”에서 ‘명목상 신자의 급증에 대한 간과’를 획일화된 통계에 대한 맹신, 아프리카의 토속신앙과 이단적인 독립교회에 대한 무지, AIDS의 감염률의 심각성에 대한 무관심, 10/40창 외 지역의 선교적 소의를 남부 아프리카의 선교적 상황과 오해로 지목했다.

이슬람 신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사하라사막과 그 이북과는 달리 아프리카 중남부지역은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높다. 강 선교사는 그의 글에서 이 지역에서 기독교 신자 비율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명목적인 신자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도 믿음도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무늬만 신자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매주 교회에 출석하지만 성경과 기독교 가치관에 기반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명목적인 신자 현상은 교회 출석을 등한히 하는 한국교회와는 달리 기독교 신앙과 토속종교를 함께 받아들이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기독교 신자라고 해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비기독교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기독교 신자라 말하면서도 전통적인 성의식으로 인한 문란한 성관계로 에이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아프리카 기독교는 명목적인 신앙생활을 극복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프리카에서도 주목해야 할 새로운 선교지이다.

아프리카를 꽃피우는 손길, 함께해 주세요.

기관번호 (FEIN)

- 83-4396614
Africa Future Foundation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250)

714-732-1484 (미국) +82)31-342-9182 (한국)
✉ aff@africaff.org 🌐 www.africaffusa.org
☎️ 📱 아프리카미래재단
📷 africafuturefoundation

후원하는 방법

- 수표 보내실 때
- 받는 사람 : Africa Future Foundation
- 주소 :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송금하실 때
- 은행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251 2035 5776
- Routing 번호 : 121000358
- Zelle를 보내실 때
- 이메일 : africaffusa@gmail.com
- Africa Future Foundation
- 송금하실 때 (아틀란타지부 전용)
- 은행 : Chase Bank
- 계좌번호 : 462352621
- Routing 번호 : 322271627

선한 청지기들 2024. 4. 1-6. 30 / 재정 보고

헌금자 명단

김은식 김응원 김민용 김홍식/김정미 나삼진 백형순 송은석/이원희 심선희/심재광 이경호 이승숙 이종남 이홍철 장국현 정진철 한창훈 황길남/황로미

Kim Beckett, James Kim, Eun S. Kim, Michelle Lim, Woo/Min Sun Lim, Simon Paek, Michael Yang, John Yahng
새벽이슬교회, 신약국(신사라), 예수소망교회, 오렌지카운티살롬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JJ물리치료(정정훈),
Exalting Christ Church of Atlanta, Fidelity Charitable First Morningstar Foundation, Hope Family Medicine with Express Care,
Livingstone Home Health, Priority Hospice, Kani Han, Steve Lee, Kenneth K. Lim, Suh Family Trust

*혹시 이름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AFF 사무총장 (714-732-1484)에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 결산

수입부

4월	2,060
5월	27,050
6월	84,970
	8,000
수입계	114,080

지출부

사업비/ 니제르 사업비	50,000	인건비	2,743.50
선교사대회 지원	30,000	후원의 밤	319.59
소계	80,000	사무비	325.29
행정비/회보 인쇄비	2,207.75	세금/CPA 수수료	707
우편료	496.60	소계	6,799.73
		지출합계	86,799.73

수입부 아틀란타 지부

1월	1,600
2월	4,300
3월	19,300
합계	25,200

지출부 아틀란타 지부

DR 콩고 숙소 건축비	35,000
선교사대회 후원비	20,000
조산병원 운영비	7,080
송금수수료	150
합계	62,230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www.africaffusa.org

